

흉부상부형태에 따른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Amount To Be Removed at the Neckline  
According to the Upper Chest Type**

구 미 지  
배재대학교 의류학부

Koo, Miji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how to divide the upper chest type and to find out the amount to be removed at the neckline according to the different upper chest type and different neckline depth.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ed.

1. In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the upper chest could be explained by six factors such as the shape factor of the upper chest, shoulder curve factor, shoulder sloping factor, space factor from shoulder to waist, upper chest slope factor, and the bust size factor.

2. The shape of the upper chest could be divided by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is characterized as lagging and bent backward shoulder, slight slope of upper chest, and small bust. The second group is comparatively curved at the upper chest and big bust. The third group is rising and bent forward shoulder, slight curved upper chest.

3. The amount to be removed at the different neckline depth and in these three types of upper chest had a difference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upper chest shape containing the shoulder shape.

**Key words** : the amount to be removed, upper chest type, three kinds of neckline depth

## I. 서론

의복의 형태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착용자의 연령대와 인체 각 영역에 따른 체형분류를 기초하여 행하여져 왔다.(권숙희 외 1인, 1996; 심정희 외1인, 1996; 平澤和子 외 1인,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상반신 측면분류(이순원 외 1인 1991)와

정면 분류(권숙희 외1인 1996) 등과 같이 체형을 유형화 한 것들이다. 여기서 상반신에 대한 분류나 흉부형태를 언급한 연구 중 平澤(1993)은 흉부형태를 새가슴, 큰가슴, 작은 가슴, 편평한 가슴, BP위치가 처진형태 등으로 나누었고 어깨점에서 허리에 이르는 항목이 흉부의 입체량을 나타낸다고 하여 상반신 체형을 흉부상부의 형태와 연관시켰다. 김순자(1996)는 가슴상부경사각이 큰 것인 체형은

---

Corresponding author : Koo, Miji  
Tel : (042)520-5414, Fax : (042)520-5576  
E-mail : mjkkoo@mail.paichai.ac.kr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가슴이 크게 들출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김혜경 등 (1995)도 상반신 체형분류에서 흉부관련항목을 연관시켜 하였다. 김은숙(1984), 이경화 외 1인(1995), 문화식패턴(1987)에서는 상반신유형을 가슴의 크기나 형태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최근 이브닝 드레스 등 네크라인을 많이 파는 디자인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패턴에 비해 한 단계 더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간과되면서 발생하는 맞음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네크라인이 깊어지면서 패턴에서의 네크라인과 실제 체형에서의 네크라인의 차이 때문에 네크라인이 들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의 보정을 위해 패턴 제작시 네크라인을 줄여주는데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은 상반신 체형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흉부상부의 형태와 관계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체형분류가 상반신의 경우 길원형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흉부상부와 같은 세부영역에 대한 의복의 형태적합성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드레스의 네크라인에 관계된 흉부상부의 체형을 분류하고 흉부상부의 형태에 따라서 네크라인의 줄여주는 분량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디자인 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이는 체형분류결과를 길원형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 선에 적용시키며 기성복의 패턴에 직접 응용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다.

##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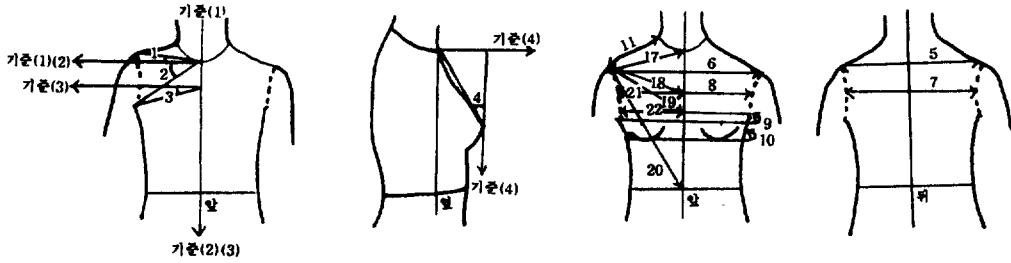
### 1. 예비실험

흉부상부의 체형분류와 피험자 선정을 위하여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피험자 101명에 대하여 흉부 계측을 하였다. 실험은 예비실험은 2000년 10월 초부터 12월초까지 행해졌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흉부상부 형태와 관련된다 판단되어 결정된 계측항목은 <표 1>, <그림 1>과 같다. 계측항목은 각도항목 4개, 길이항목 15개, 계산항목 3항목으로 총 22항목이다. 길이항목 중 앞품점/CF와 같은 항목은 앞품점 수준에서 앞중심선과의 교차점을 나타내는 방식을 표현하였다. 피험자는 레오타드를 착용하여 흉부의 윤곽선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줄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결과에 따라 흉부상부의 유형을 분류하고 본 실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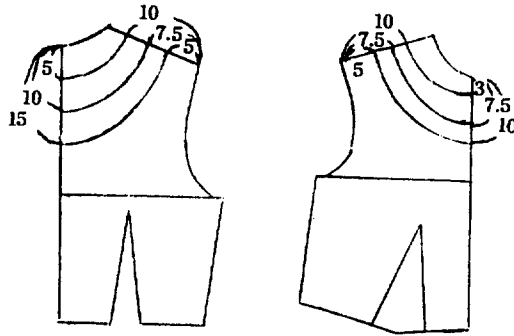
<표 1>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n=101)

번호	항목	평균	표준편차	번호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목앞점어깨각도	7.92	3.44	12	뒤어깨폭과 앞어깨폭 차	2.91	1.22
2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14.61	4.92	13	뒤품과 앞품 차	5.01	2.19
3	앞품점/CF와앞겨드랑점각도	-11.56	5.37	14	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 차	7.70	2.54
4	흉부상부경사각도	25.59	3.96	15	목앞점-앞품/CF	3.10	0.86
5	뒤어깨폭	39.46	1.89	16	목앞점-앞겨드랑점/CF	9.03	1.10
6	앞어깨폭	36.55	1.52	17	어깨점-목앞점	18.36	0.87
7	뒤품	37.17	2.10	18	어깨점-앞품/CF	19.53	0.95
8	앞품	32.16	1.40	19	어깨점-앞겨드랑점/CF	22.23	0.97
9	가슴둘레	81.76	4.69	20	어깨점-허리선/CF	38.06	1.88
10	밑가슴둘레	74.06	4.04	21	앞품점-앞품점/CF	16.04	0.89
11	어깨길이	12.20	0.82	22	앞겨드랑점-앞겨드랑점/CF	14.98	0.99



〈그림 1〉 실험복의 넥크라인



〈그림 2〉 실험복의 넥크라인

위하여 유형별로 피험자를 3명씩 선정하였다. 유형 분류를 위하여 인자분석과 군집분석을 하였다.

## 2. 실험복 제작

본 실험을 위한 실험복을 가장 얇은 머슬린으로 제작하였다. 실험복은 FIT식 원형을 사용하여 어깨

길이를 10cm, 7.5cm, 5cm로 하여 뒷길은 10cm, 7.5cm, 5cm로, 앞길은 10cm, 7.5cm, 3cm로 넥크라인을 판 세 종류의 넥크라인의 디자인으로 하였으며 <그림 2>, 이들을 편의상 SL10, SL7.5, SL5로 명명하였다. 즉 SL10은 약간만 판 경우, SL5는 드레스에서 많이 팔 경우 Armstrong(1987) 등의 드레스 디자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깨선을 5cm만 남긴 경우를 말한다.<sup>1)</sup>

1) SL7.5의 뒷길과 앞길의 넥크라인 파인 치수는 뒷품선, 앞품선 설정시 각각 10cm, 7.5cm로 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다. 뒷품선, 앞품선은 패턴설계시 흉부상부에서 여유분을 고려하는 부위이므로 밀착의 경우 줄임위치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되어 선택되었다.

## 3. 본실험

본실험은 2001년 5월에 행해졌다. 피험자는 예비 실험의 피험자 중 유형별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피험자를 유형별로 각각 2명씩 선정하였다. 실험복 제작을 위한 계측은 FIT식 원형과 관련된 항목들을 계측하여 패턴제작을 하였다. 체형 유형별, 디자인별 착용시 넥라인의 줄임분량을 보정량으로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위하여 2회 반복 측정하였다. 줄임위치는 넥라인, 넥라인에서 어깨선위치, 암홀, 중심선으로부터 넥라인 보정위치의 4항목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평균과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계측치분석

흉부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계측한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직접 계측치가 갖는 정보로 흉부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직접항목과 계산항목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모형에 의해 요인을 추출한 후 배리맥스 방법으로 직교회전시킨 결과 6개 인자들로 축약되었으며 이들은 전체변량의 79.9%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계측항목의 인자분석 결과

계측항목	인자						공변량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인자 5	인자 6	
어깨점-목앞점	.9028	.0281	-.1589	.0449	.0708	-.0092	.8483
앞어깨폭	.8957	.2542	.0377	.0427	.0409	.1192	.8860
어깨점-앞품점/CF	.8814	-.0552	-.0301	.1554	.1572	-.0346	.8308
앞품점-앞품점/CF	.8542	-.1157	-.0693	.1382	.1871	-.1442	.8228
앞품	.8286	-.0445	0.554	.0838	.0622	.0142	.7027
어깨점-앞겨드랑점/CF	.7183	-.1658	.0712	.4430	-.1279	.1331	.7788
어깨길이	.6739	.4270	.2276	-.2531	.1609	.0693	.7830
앞겨드랑점-앞겨드랑점/CF	.6495	-.2596	-.0969	.3579	.3017	-.1522	.7408
뒤품	.2069	.8840	-.0062	.2568	-.0138	.0896	.8985
뒤어깨폭과앞어깨폭 차	-.2101	.8641	.0985	-.0774	-.0867	-.1562	.8384
뒤어깨폭	.5764	.7788	.0958	-.0174	-.0251	-.0088	.9490
뒤품과 앞품 차	-.4314	.7771	-.0457	.1551	-.0571	.0652	.8236
목앞점-앞겨드랑점/CF	-.0314	-.0358	.8217	.1320	-.3145	.1843	.8276
목앞점-앞품/CF	.0465	.1028	.7880	-.0456	.1235	-.0929	.6596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1130	.1137	-.7474	.0221	-.1445	-.1113	.6181
목앞점어깨각도	-.0839	-.2580	-.7147	.3385	-.0860	.1563	.7308
밑가슴둘레	.1551	.2364	-.1003	.8737	-.1324	-.0771	.8769
가슴둘레	.1232	.1855	-.0593	.8008	-.1325	.4505	.9149
어깨점-허리선/CF	.3633	-.1268	-.0319	.6169	.4209	-.0253	.7074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 각도	.1111	-.1705	.0612	-.0222	.8568	.0210	.7802
흉부상부경사각도	-.1747	-.0806	-.0620	.0700	-.7725	.0659	.6468
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 차	-.0191	-.0332	.0500	.9000	-.0342	.9540	.9233
고유치	6.6222	3.5207	2.8744	2.0830	1.4575	1.0308	
총변량(%)	30.1	16.0	13.1	9.5	6.6	4.7	
누적변량(%)	30.1	46.1	59.2	68.6	75.3	79.9	

인자1은 어깨점-목앞점, 앞어깨폭, 어깨점-앞품점 /CF, 앞품점-앞품점/CF, 앞품, 어깨점-앞겨드랑점 /CF, 어깨길이, 앞겨드랑점-앞겨드랑점/CF로 흉부 상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게 하는 인자로 전체변량의 30.1%를 설명해준다. 인자2는 뒤편, 어깨폭차, 뒤어깨폭, 뒤편과 앞품 차로 어깨의 굴신 정도를 나타내며 16.0%를 설명해준다. 인자3은 목 앞점-앞겨드랑점/CF,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목앞 점어깨각도로써 어깨가 솟았는지 처졌는지를 나타내는 어깨높이인자이며 전체변량의 13.1%를 설

〈표 3〉 인자별 계측항목과 특징

	계측항목	특징
인자 1	어깨점-목앞점, 앞어깨폭, 어깨점-앞품점/CF, 앞품점-앞품점/CF, 앞품, 어깨점-앞겨드랑점/CF, 어깨길이, 앞겨드랑점-앞겨드랑점/CF	흉부상부 형태인자
인자 2	뒤편, 뒤어깨폭과 앞어깨폭 차, 뒤어깨폭, 뒤편과 앞품 차	어깨굴신인자
인자 3	목앞점-앞겨드랑점/CF, 목앞점-앞품점/CF 목앞점어깨각도,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어깨높이인자
인자 4	밀기슴둘레, 가슴둘레, 어깨점-허리/CF	흉부입체량 인자
인자 5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 각도, 흉부상부경사각도	흉부상부 경사인자
인자 6	가슴둘레와 밀기슴둘레 차	유방크기인자

〈표 4〉 유형별 평균, F값과 Duncan test 결과

	계측항목	유형 1	유형 2	유형 3	F값	Duncan test
흉부상부형태인자 (인자1)	어깨점-목앞점	18.26	18.50	19.00	2.19	
	앞어깨폭	36.41	36.88	37.40	1.70	
	어깨점-앞품점/CF	19.47	19.63	19.74	0.38	
	앞품점-앞품점/CF	16.01	16.04	16.36	0.35	
	앞품	32.16	32.43	32.60	0.29	
	어깨점-앞겨드랑점/CF	22.09	22.69	21.90	4.00*	B A AB
	어깨길이	12.24	12.08	12.50	0.70	
어깨굴신인자 (인자2)	앞겨드랑점-앞겨드랑점/CF	14.95	15.04	15.03	0.10	
	뒤편	36.61	38.27	39.20	9.86***	B A A
	뒤어깨폭과 앞어깨폭 차	2.72	3.12	3.80	2.40	
어깨높이인자 (인자3)	뒤어깨폭	39.14	40.00	41.20	4.48*	B A A
	뒤편과 앞품 차	4.45	5.84	6.40	4.44*	B A AB
	목앞점-앞겨드랑점/CF	9.14	9.08	7.20	8.31***	A A B
흉부입체량인자 (인자4)	목앞점-앞품점/CF	3.28	2.78	2.30	6.00**	A B B
	목앞점어깨각도	7.16	9.50	10.40	6.38***	B A A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15.39	-13.58	-2.00	31.17***	C B A
흉부상부경사인자 (인자5)	밀기슴둘레	72.41	78.25	75.40	32.95***	B A A
	가슴둘레	80.07	86.23	82.10	23.76***	B A B
	어깨점-허리선/CF	37.84	38.75	37.50	2.51	B A AB
유방크기인자 (인자6)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 각도	-9.93	-15.50	-14.00	13.44***	A B AB
	흉부상부경사각도	25.71	28.92	25.40	6.79***	B A AB
	가슴둘레와 밀기슴둘레 차	7.66	7.98	6.70	0.55	

명해준다. 인자4는 밀가슴들레, 가슴들레, 어깨점-허리선/CF로 흉부의 입체적인 형태 즉 어깨에서 허리까지의 자세와 관련된 흉부입체량인자이다. 인자5는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 각도, 흉부상부 경사각도이며 이들은 흉부상부의 경사정도와 관련된 인자이다. 인자6은 가슴들레와 밀가슴들레 차로 유방크기인자이다. 위의 결과는 흉부상부형태인자와 어깨 굴신인자, 어깨높이인자 요인의 누적기여율이 59.2%로 흉부체형에 있어 흉부상부의 면적과 형태를 결정 짓는 요소는 어깨의 굽은 정도와 솟은 정도가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자들의 특성과 관련 항목을 요약한 것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부상부는 어깨와 흉곽형태, 유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 입체적인 형태임을 인지하여야 하는 부위였다.

## 2. 체형의 유형화

인자분석에서 추출된 6개의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군집간 차이가 뚜렷하고 군집분류가 적합한 군집수 3가지의 유형으로 흉부상부를 분류하였다. <표 4>는 군집분석 후 분류된 세 유형별 평균, 분산분석과 다중비교 중 Duncan test 결과를 인자별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세 유형의 계측치 평균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들은 인자1은 어깨점-앞겨드랑점/CF, 인자2는 뒤품, 뒤어깨폭, 뒤품과 앞품 차, 인자3은 목앞점-앞겨드랑점/CF, 목앞점-앞품점/CF, 목앞점어깨각도,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 인자4는 밀가슴들레, 가슴들레, 어깨점-허리선/CF, 인자5는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각도, 흉부상부경사각도이다.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은 어깨굴신, 어깨높이, 흉부입체량, 흉부상부경사와 관련된 인자에 속한 것들이었다. 유형별 인자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은 목앞점-앞품점/CF, 목앞점-앞겨드랑점/CF처럼 어깨높이와 관련된 길이 항목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어깨높이관련 인자에 속한 각도 항목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작았다. 어깨굴신정도를 나타내는 뒤어깨폭, 뒤품, 또 뒤품과 앞품의 차 항목들과 밀가슴들레, 가슴들레과 같은 흉부입체량 인자와 관련된 항목들의 수치가 작았다. 어깨점-허리선/CF는 어깨가 처졌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다. 즉 이 유형은 흉부상부 형태는 어깨가 처지고 뒤로 젖혀졌으며 가슴경사가 약간 있으나 어깨로부터 허리까지의 입체량은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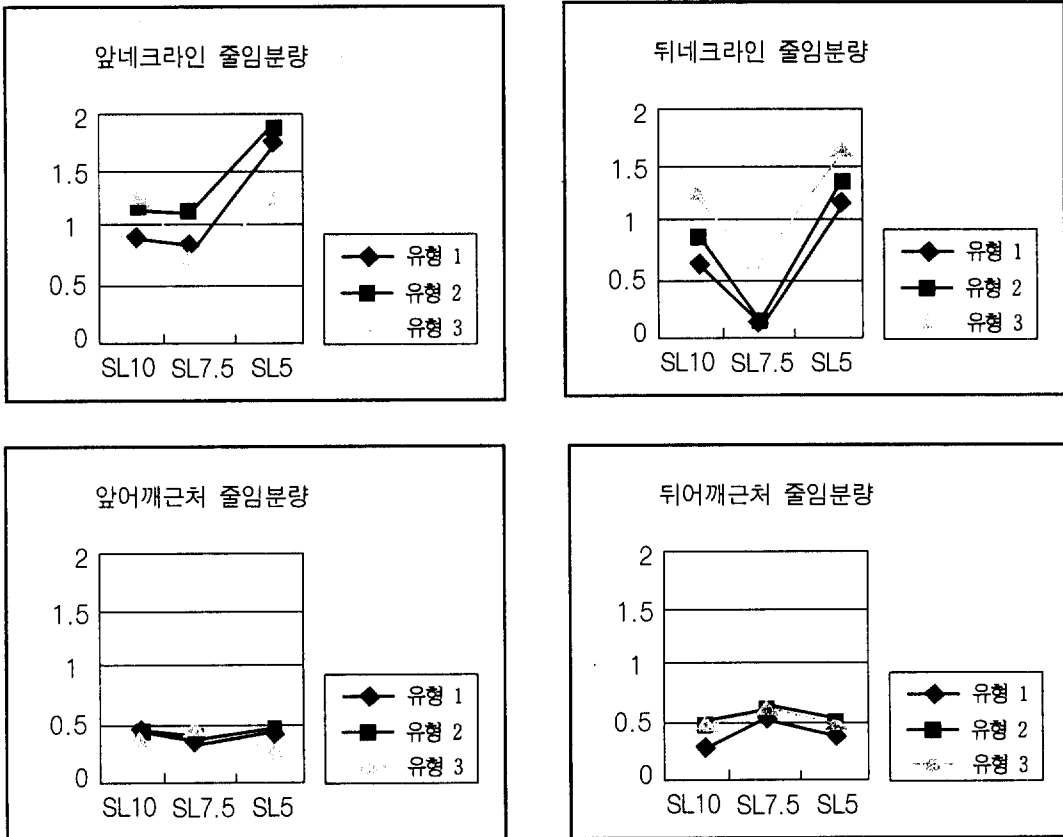
유형2는 대부분의 치수가 유형1과 유형3의 중간치를 가지고 있으나 앞품점/CF와 앞겨드랑점 각도와 흉부상부경사각도와 같은 흉부 상부의 경사 인자 항목들과 가슴들레, 밀가슴들레, 어깨점-허리선/CF, 가슴들레와 밀가슴들레 차 등 흉부 입체량과 유방크기에 관련된 항목들의 수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이 유형은 흉부 상부가 세 유형 중 가장 경사가 크고 양 어깨로부터 허리까지의 입체량이 크며 유방이 발달한 유형이다.

유형3은 어깨점-목앞점, 앞어깨폭, 어깨점-앞품점/CF, 앞품점-앞품점/CF, 앞품, 어깨길이 등 흉부상부의 형태를 나타내는 항목들, 뒤품, 뒤어깨폭과 앞어깨폭 차, 뒤어깨폭, 뒤품과 앞품 차와 같은 어깨굴신인자 항목들, 목앞점어깨각도, 목앞점앞겨드랑점각도와 같이 어깨높이인자에 속한 각도 항목들의 수치가 컸다. 즉 이 유형은 어깨점이 높으면서 굽은 어깨이다.

## 3. 네크라인의 줄임분량

세 종류의 깊이가 다른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을 구하여 유형별 평균과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앞네크라인의 경우 세 유형 모두 SL7.5에서 줄임분량이 감소하였다가 네크라인이 깊이 파진 SL5에서 다시 줄임분량이 증가하였다. 뒤네크라인의 경우 앞네크라인과 같은 경향을 보이거나 유형에 따른 특징은 앞네크라인과 다르다. 즉 앞네크라인은 유형3이 L7.5, SL5에서 가장 작은 줄임분량을 나타냈다. 이는 유형3의 경우 흉부상부의 돌출과 어깨점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흉곽의 입체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방이 작고 젖힌 어깨인 유형1은 세 네크라인 중 원형에 가까운 SL10에서 볼 때 앞 뒤 네크라인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줄임분량이 적었다.

어깨근처에서는 뒤어깨근처의 경우 SL7.5에서 SL10이나 SL5보다 줄임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앞어깨 근처의 경우는 유형3의 경우는 뒤와 같은



〈그림 3〉 유형별, 네크라인의 종류별 줄임분량

〈표 5〉 유형별, 네크라인의 종류별 줄임분량의 평균, F값과 Duncan test 결과

네크라인의 종류		SL10				SL7.5				SL5			
		유형1	유형2	유형3	F값	유형1	유형2	유형3	F값	유형1	유형2	유형3	F값
앞	네크라인	0.95 B	1.13 A	1.20 C	11.43**	0.90 B	1.08 A	0.75 B	6.52*	1.63	1.71	1.25	
	어깨선근처	0.40	0.47	0.43		0.40	0.40	0.50		0.42	0.48	0.30	
	암홀	1.15	1.53	0.65		0.80 B	1.48 A	0.65 B	5.55*	0.48 B	1.52 A	0.55 B	63.34**
	줄임위치	6.10 B	7.45 A	6.55 AB	7.07*	5.98 B	6.23 B	9.45 A	19.83**	7.00 A	5.70 B	6.45 AB	11.62**
뒤	네크라인	0.60 B	0.82 AB	1.18 A	5.39*	0.20	0.17	0.71		1.15	1.30	1.65	
	어깨선근처	0.30	0.52	0.48		0.53	0.62	0.60		0.40	0.53	0.50	
	암홀	1.48	1.43	1.10		1.18 AB	1.56 A	0.75 B	12.85**	0.30	1.48	0.58	
	위치	6.78 A	6.02 B	6.42 A	5.47*	7.35	9.97	6.80		5.03	6.88	6.20	

경향을 보였다. 어깨에서 줄여주는 분량이 0.5cm 안팎의 작은 치수이나 체형유형에 따라 줄여주는 방식을 달리 해야함을 말한다.

암홀선에서의 줄임분량은 유형2가 가장 큰 편으로 나타났고 유형1과 유형2는 치수는 차이가 나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네크라인을 줄여주는 위치는 앞네크라인의 경우는 유형3이 SL7.5에서 가장 크고, 뒤네크라인의 경우는 유형2가 SL7.5에서 크게 나타났다.

유의도 검증결과 평균의 유형별 차이를 보인 항목들은 뒤 네크라인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에서 유형1과 유형3은 유사한 수치들을 보였으나 유형2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흉부상부의 경사정도, 어깨의 굽은 정도로 인한 흉부입체량, 유방크기 등이 네크라인 깊이에 따른 줄임분량에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흉부상부의 형태를 분류하고 네크라인의 깊이에 따른 체형별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자분석 결과 흉부상부는 흉부상부 형태인자, 어깨굴신인자, 어깨높이인자, 흉부입체량인자, 흉부상부경사인자, 유방크기인자의 여섯 개의 인자로 설명할 수 있었다.
2. 흉부상부 형태는 어깨가 처지고 뒤로 젖혀졌으며 가슴경사가 약간 있으나 어깨로부터 허리까지의 입체량은 적은 유형, 흉부상부가 세 유형 중 가장 경사가 크고 양 어깨로부터 허리까지의 입체량이 크며 유방이 발달한 유형, 어깨점이 높으면서 굽은 어깨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2. 흉부상부 형태는 어깨가 처지고 뒤로 젖혀졌으며 가슴경사가 약간 있고 유방이 작은 유형, 흉부상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많이 튀어나오고 유방이 발달한 유형과 어깨점이 높으

면서 약간 굽은 어깨이며 흉부상부가 약간 튀어나온 유형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 이들 세 유형에 대해 세 종류의 깊이가 다른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을 구한 결과 유형별 네크라인의 줄임분량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유형2는 유형1, 유형3과는 다른 유형을 보였다. 이는 흉부상부의 경사정도, 어깨의 굽은 정도로 인한 흉부입체량과 유방크기 등이 네크라인 깊이에 따른 줄임분량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줄임분량, 흉부상부형태, 깊이가 다른 세 종류의 네크라인

#### 참고문헌

- 권숙희 외1인(1996), 청년기 여성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20(2), 282-297.
- 김순자(1996),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측면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0(2), pp. 373-389.
- 김은숙(1984), 체형에 따른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실림갈 10.
- 김혜경, 김순자(1995) 중년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상반신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19(6), pp. 1027-1039.
- 문화여대의복구성실 편, 박혜숙 역(1987), 피복구성학 이론편, 경춘사.
- 심정희, 함옥상(1996), 중년 여성의체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pp. 128-141.
- 이경화, 최혜선(1995), 노년 여성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흉부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pp. 995-1007.
- 이순원, 남윤자(1991), 길원형을 위한 상반신의 체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pp. 341-349
- 平澤和子, 長井久美子(1993), 成人女子の體型つきの分類(第1報), 家政學會誌, 44(7), pp. 581-588.
- Armstrong(1987), *Patternmaking for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 & Row, Pub.